

워크숍 자료집 19-S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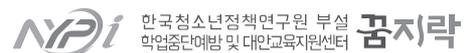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

일시 | 2019.08.22.(목), 10:30~15:30

장소 | 티마크그랜드호텔 명동, 3F 티마크그랜드홀

주최 | 교육부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꿈지락



연 / 수 / 일 / 정

- 일 시** 2019년 8월 22일(목), 10:30~15:30
- 장 소** 티마크 그랜드 호텔
- 주 최** 교육부
- 주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꿈지락

일 시		내 용	비 고
10:00~10:30	30'	등 록	
10:30~10:40	10'	개회 및 인사말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0:40~11:25	45'	[특강1]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리더십 향상	박상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11:25~11:45	20'	휴 식	
11:45~12:30	45'	[특강2] 청소년 정신건강과 학교 적응	박은진 (인제대학교 백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12:30~13:30	60'	중식 및 담당자간 교류	
13:30~13:55	25'	[사례1] 별무리학교 사례	박현수 교장
13:55~14:20	25'	[사례2] 소명중고등학교 사례	신병준 교장
14:20~14:30	10'	휴 식	
14:30~15:10	40'	[토 의] 대안교육시설 발전방안 논의	
15:10~15:30	20'	토의 내용 공유 및 질의응답	
15:30~		폐회	

※ 일정은 행사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목 / 차

01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리더십 향상	1
	박 상 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02	청소년 정신건강과 학교 적응	11
	박 은 진 인제대학교 백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장	
03	별무리학교 사례	25
	박 현 수 교장	
04	소명중고등학교 사례	45
	신 병 준 교장	
05	분임토의(대안교육시설 발전방안 논의)	53



01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리더십 향상

박 상 진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리더십 향상¹⁾

I. 들어가는 말

한국의 대안학교는 오늘날 공교육에 대안적 성격을 지닌 학교이다. 그 대안의 방향은 다양하지만 획일적이고 비인간적인 입시위주의 왜곡된 교육에 대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학교들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의 대안학교는 한국교육의 새로운 희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동시에 대안학교는 중첩적인 위기 속에 있다. 이 위기는 크게 네 종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여전히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미인가인 상태에서 겪게 되는 제도적 어려움이다. 현재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제에 대한 법제화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전망이 불투명하고, 입법화 이후에도 대안학교의 제도적 안정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둘째는 미래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의 문제이다. 소위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는 대안교육에 있어서도 교육방법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교과중심의 교육으로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없고 창의력과 상상력, 융합과 통섭, 그리고 태도와 역량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셋째는 대안학교에 대한 참신한 이미지의 약화이다.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학교가 설립되고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학교들이 등장하다보니 오히려 ‘비 대안적’ ‘반 대안적’ 학교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이다. 입시위주의 경쟁주의적 학교, 해외 유학 준비의 학원같은 학교, 주먹구구식의 준비없이 세워진 질 낮은 학교들이 등장함으로 대안학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넷째는 대안학교의 실제적인 위기로서 운영의 어려움이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현상과 대안학교의 증가로 인해 학생충원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적 현실 속에서 대안학교의 교육지도자는 어떤 리더십을 지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안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성원들을 격려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면서도 대안교육의 철학과 이념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이 글은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주목하면서 대안학교 지도자의 리더십 제고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본 원고에서 사용하는 ‘대안학교’라는 용어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지칭함.

II. 전통적 리더십

옥스퍼드 사전을 찾아보면 영어단어로 지도자(leader)라는 단어는 일찍이 1300년경에 출현했으나, 리더십(leadership)이라는 단어는 19세기 초반에야 등장하였다고 한다. 리더십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리더십은 접근하는 입장에 따라, 그리고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리더십을 영향력의 행사, 설득의 형태, 권력관계, 목표달성의 수단, 역할분담, 구조의 마련 등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발간된 '교육지도성 및 인간관계론'에 예시된 지도성(리더십)의 정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²⁾ 1) 지도성은 집단과정(group process)의 핵심이다. 2) 지도성은 인성과 그 영향이다. 3) 지도성은 복종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이다. 4) 지도성은 영향력의 행사이다. 5) 지도성은 행동이다. 6) 지도성은 설득의 한 형태이다. 7) 지도성은 권력관계이다. 8) 지도성은 목적달성의 수단이다. 9) 지도성은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10) 지도성은 분화된 역할이다. 11) 지도성은 구조의 창출이다. 이러한 다양한 리더십에 대한 정의들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정의를 든다면, "리더십은 한 개인이 집단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 구성원에게 합법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과정" 또는 "리더십이란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과업과 구성원에게 끼쳐지는 조직 리더의 영향력"이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다.³⁾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접근방식에 따라 이루어져 왔는데, 특성적 접근, 행동적 접근, 상황 적응적 접근 등이다.

1. 특성적 접근

특성적 접근(trait approach)은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접근방법으로서 리더의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스톡딜(R. M. Stogdill)이 리더십에 관한 연구문헌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947년 이전까지는 리더십의 특성으로 나이, 신장, 체중, 체격, 용모, 언어유창성, 지능, 학교 성적, 관련 지식, 판단력, 통찰력, 솔선수범, 인내심, 책임감,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성, 인기, 협동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능력, 성취, 책임, 참여, 지위, 상황 등 크게 여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⁴⁾ 그러나 1948년의 조사에서는 신체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지속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의 인성적 특성, 즉 기민성, 독창성, 인격성, 통합성, 자신감 등은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리더십의

2) 신중식, 노종희 외, 『교육지도성 및 인간관계론』(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4-5.

3) 윤정일 외, 『교육리더십』(서울: 교육과학사, 2004), 30.

4) R. M. Stogdill, *Handbook of Leadership: A Survey of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1974), 39-59.

특성에 관한 요인들은 리더의 기술, 집단관리,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리더의 기술적 특성으로는 대인관계 기술, 전문적 기술, 행정적 기술, 지적 기술, 조직목표의 성취, 친화력, 그리고 집단과업에 대한 지원성을 들고 있다. 집단과의 관계에서의 특성은 집단응집성 유지, 조정의 팀웍 유지, 일정 수준의 성과 유지, 비공식집단의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리더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책임감, 정서적 안정감, 인격적 통합성, 언어구사력, 지배성, 좋은 성품, 스테미나, 경험과 활동, 교양, 용기, 공정성, 창의성, 확신감 등을 들고 있다.⁵⁾ 그러나 특성이론으로는 리더십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리더와 집단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 행동적 접근

1945년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더십 연구(Ohio State Leadership Studies)가 시작되면서,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특성적 접근이 아닌 행동적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특성을 기초로 한 리더의 선발이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리더에게 요구되는 특성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며, 리더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리더의 특성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⁶⁾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더십 연구는 리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리더행동기술질문지’(Leader Behavior Description Questionnaire: LBDQ)를 개발하게 된다. 이 질문지는 리더의 행동을 과업지향성과 인화지향성으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의 결과 과업(지향성)이 높고 인화(지향성)이 낮은 경우는 ‘과업지향적 유형’으로, 과업이 낮고 인화가 높은 경우는 ‘인화지향적 유형’으로, 과업도 높고 인화도 높은 경우는 ‘효과적인 유형’으로, 과업도 낮고 인화도 낮은 경우는 ‘비효과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리더십에 대한 행동적 접근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소위 관리격자(Managerial Grid)를 창안하였다. 생산에 대한 관심은 물질적이며 과업지향적인 관심이며, 인간에 대한 관심은 대인관계와 구성원들의 자아존중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블레이크와 머튼은 두 관심이 모두 낮은 경우는 ‘방임형,’ 인간에 대한 관심만 높은 경우는 ‘사교형,’ 생산에 대한 관심만 높은 경우는 ‘권위형,’ 둘 다 높은 경우는 ‘팀형,’ 그리고 둘 다 가운데 정도이면 ‘중도형’으로 구분하였다.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행동적 접근은 리더의 행동을 유형화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리더십 효과’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접근이 바로 상황적응적 접근이다.

5) 신중식, 노종희 외, 20.

6) 위의 책, 21-22.

3. 상황적응적 접근

상황적응적 접근(contingency approach)은 리더의 인성특성과 리더의 행동이 상황요인과 어떻게 결합되었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허시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에 의하면 상황적 접근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한다. 즉, 리더십의 세 가지 요소인 리더(leader:L)와 추종자(follower: F) 및 상황변수(situational variables: S)간의 함수관계(f)인 $L=f(L \cdot F \cdot S)$ 로 나타낼 수 있다.⁷⁾

휘들러(Fiedler)의 상황적 모형 연구도 이 접근의 대표적 연구 중의 하나인데, 그에 의하면 리더십 유형은 리더의 동기 체제에 의해서 결정되며, 집단의 효과는 리더십 유형과 상황적 호의성(situational favorableness)이 어떻게 결합되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⁸⁾ 상황적 호의성은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첫째, 리더와 조직 구성원간의 관계, 둘째, 과업의 구조화 정도, 셋째, 직위에 부여된 권력,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되었느냐에 따라 상황은 리더에 대해서 보다 호의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⁹⁾ 리더십 유형과 상황적 호의성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는데, 예컨대 Fiedler의 연구에 의하면 과업지향적 리더는 매우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데 반해서, 인화지향적 리더는 약간 호의적인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즉, 리더의 특성이나 행동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리더십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III. 대안적 리더십

1. 변혁적 리더십

최근 등장한 새로운 리더십 이론 중의 하나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특히 교사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변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혁(transformation)이라는 말의 의미는 변천(transitions), 재생(renewals), 변경(alterations), 그리고 수정(adjustments) 등과 같은 변화 과정을 표현하는 의미와는 개념이 다르다. “변혁”이란 또 다른 변형(metamorphosis), 혹은 한 상황이 질적으로 다른 상황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¹⁰⁾ 즉 변혁이란 한 체제 안에서의 변화가

7) Paul Hersey and Ken Blanchard,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N. J.: Prentice-Hall, 1988).

8) Fred E. Fiedler, *A Theory of Leadership Effectiveness* (N. Y.: McGraw-Hill, 1967).

9) 신중식, 노종희, 28-32.

10) 이병진,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교육리더십』(서울: 학지사, 2003), 104.

아닌, 체제의 전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전통적 리더십이 지도자와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를 교환적 거래 관계로 보는 교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은 특히 번스(Burns)에 의해서 발전했는데 그는 “변혁적 지도성은 지도자와 부하가 서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동기유발의 상태로 고양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교환적 지도자가 부하들에게 타산적인 이해관계에 호소하여 동기를 유발하는 것과 대조시키고 있다.¹¹⁾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가치와 이상에 호소하여 추종자들의 의식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며, 그들을 전인격체로 대우하고 동기화시키고, 추종자들의 행동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기대 이상의 직무성취를 가능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의 발휘는 지도자와 추종자들이 높은 수준의 동기와 도덕성을 상호 공유하며 조직에 몰입할 때 가능한 것이다.

교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들을 비교하면 다음의 도표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혁적 리더십은 교환적 리더십보다 교사 리더십의 특징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미래지향적이며, 규정보다 목적과 가치를 근거로 하며, 일방적 의사소통이 아닌 수평적, 다 방향적이고, 내적 보상을 추구한다. 권위는 구성원들이 부여하며, 상향적 의사결정 과정과 합리적 설명을 통해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변혁을 추구하며, 비전과 가치관에 터하여 행동하는 특성이 있다.

〈표 1〉 교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비교¹²⁾

관점	교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시간 지향성	단기적, 현실 중시	장기적, 미래 지향적
협조의 기제	규정, 규칙	목적과 가치의 일치
의사소통	수직적, 하향적	다방향적
보상체제	외적	내적
권력의 원천	지위로부터 얻음	구성원들이 부여함
의사결정	하향적	상향적
수용의 기제	지시적	합리적 설명
변혁에 대한 태도	회피적, 저항적	적극적 대응
행동화의 기제	이윤	비전과 가치관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은 외부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고 감지하며, 그 흐름이 조직에 유리하게

11) J. M. Burns, *Leadership* (N. Y.: Harper & Row, 1978), 19.

12) 신중식, 노종희, 111.

전개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제도화하는 등, 조직의 상황을 주도하는 변화관리자로서의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의 잠재능력을 각성시키고 구성원에 대해 높은 기대 수준을 갖고, 구성원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감을 갖게 함으로써, 조직목표에 대한 높은 헌신성을 갖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 서번트 리더십

대안학교 지도자의 리더십을 설명하는 데에 특정 리더십 이론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성이론, 행동적 접근 이론, 상황적응적 접근 이론 각각이 갖는 장점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다. 교육지도자에게는 교육자가 지녀야하는 기본적인 리더십 자질이 필요하며, 그러면서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안학교 지도자라는 특성을 생각할 때, 이들의 리더십은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들과 함께 특히 변혁적 리더십으로부터 많은 통찰을 얻게 된다. 대안학교 지도자는 교육리더로서 자발적으로 모인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내면적 동기를 유발하고 대안교육적인 비전을 추구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최근 Servant Leadership이라는 책을 통해 ‘종의 리더십’을 리더십 이론으로 정착시킨 사람은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Greenleaf)일 것이다. 그린리프는 “서번트와 지도자, 이 두 역할을 한 사람이 완벽하게 해 낼 수 있을까? 설사 그럴 수 있더라도, 그 사람이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도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두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책의 첫 부분에 쓰고 있다.¹³⁾ 그린리프는 서로 상치되는 것 같은 두 단어, 서번트와 지도자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단어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서번트 리더를 정의하면서, “서번트 리더는 처음에는 서번트이다. 진정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먼저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진 뒤에야 앞에서 끌어가고 싶은 뜨거운 열망을 갖는 사람이다.”¹⁴⁾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은 특히 대안교육공동체에 꼭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 구성원의 개성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참여와 협력의 쌍방적 리더십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서번트 리더십 이론의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째가 ‘목표 집중과 신뢰’인데 리더는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고, 구성원들을 성장시킴으로 그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다. 둘째가 ‘경청과 이해’인데 섬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구성원들의 필요에 민감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13) Robert K. Greenleaf, *Servant Leadership*, 강주현 역, 『리더는 머슴이다』(서울: 참솔, 2001), 24.

14) 위의 책, 33.

조직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다. 셋째가 '다양화와 권한 이양'인데 피라밋 구조와 같이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형과 같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는 '공동체 조직'인데 조직 내에서 개인주의적인 경쟁을 유발하기보다는 상호 협동하는 분위기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확립하여야 하고 조직이 바로 공동체(community)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성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리더십은 '성상적 지도력'(Iconic Leadership)이다. 삶으로 섬김을 실천하고 본을 보이는 지도자는 아이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참 지도자는 하나의 감동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섬김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참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 그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경외감을 갖게 하고, 사랑과 온유, 겸손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 일으킨다. 그 지도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그런 지도자이다. 마하트마 간디, 마르틴 루터 킹, 마더 테레사와 같은 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오산학교의 남강 이승훈 선생이나 고당 조만식 선생, 김수환 추기경이나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을 떠올릴 수 있다.

우리들 마음 속에도 누구나 아이콘 같은 지도자가 있는데 바로 '잊을 수 없는' 지도자가 있다. 나의 삶에서 만난 그 분의 이미지가 아직도 내 삶에 아로새겨져 있어서 그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되고 비전이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그런 지도자가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리더십은 삶이다. 이것은 리더의 특성이나 자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 열정과 비전을 지닌 지도자의 전 삶이 이미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끈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 그런 이미지가 되어준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애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겨져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지도자상이 있을까?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지도자'로 기억되는 아이콘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IV. 나가는 말

대안학교의 지도자는 대안적 리더십을 요청받으면서도 대안학교의 운영과 대안교육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온갖 외부적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수행의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다. 이 글의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학령인구의 감소, 대안학교에 대한 매력도 감소, 재정의 한계, 대안학교 교사 처우에 대한 요구 증가, 학부모의 기대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대해 응전하며 대안학교를 이끌어가야 하는 책무성이 있다. 필자가 대안학교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대안학교의 쇠퇴 가능성을 파악하는 공식을 작성한 것이 있다.

$$POD = \frac{NI(DP + DL + DA + UP) - PI(NA + ICT + FS + LA)}{100}$$

즉, 대안학교의 쇠퇴 가능성(Possibility of Decline: POD)은 기독교학교에 부정적인 영향(Negative Influence)을 미치는 인구통계적인 네 가지 요인인 학령 인구의 감소(Decrease in Population: DP) 정도와 대안교육 인구의 감소(Decrease in Alternative education population: DA), 대안교육의 법과 제도에서의 결핍(Deficiency in Law and System: DL), 그리고 대안학교에 대한 체계적이지 않은 수요, 공급 계획(Unsystematic Plan: UP)의 정도를 더 한 값에서 기독교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Positive Influence: PI)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인 대안교육의 필요성(Need of Alternative education: NA)의 정도와 대안학교에서의 교육과정과 교사의 개선(Improvement in Curriculum and Teacher: ICT), 학생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Financial Support: FS), 그리고 대안학교 내의 성숙한 리더십(Leadership in Alternative education: LA)을 합한 값을 뺀 만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대안학교의 미래전망은 어떻게 하면 대안학교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증가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를 돌이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불안정성을 줄이며, 전국에 대안학교가 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데, 보다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깨우는 부모교육이 요청되며, 대안학교의 교육의 질이 성숙해야 하고, 등록금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대안학교 지도자의 리더십 제고를 통해 대안교육의 긍정적 영향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대안학교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해나가는 것은 대안학교가 진정으로 ‘대안학교다울 때’ 가능할 것이다. 대안학교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대안학교다운’ 대안학교들이 더 많이,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02

청소년 정신건강과 학교 적응

박 은 진 | 인제대학교 백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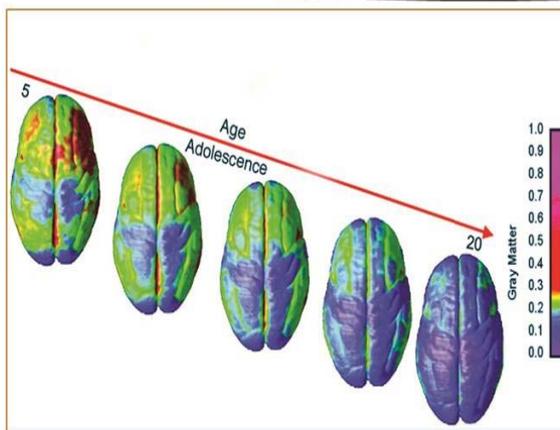
청소년 정신건강과 학교적응

박은진

인제대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교육청 지정 경기고양위더스학교
한림대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연구소



청소년기 뇌 발달



The brain continues to develop well beyond childhood. These images of the human brain show the loss of brain cells between the ages of 5 and 20 (warmer colors indicate more cells, cooler colors indicate less).
Image adapted from Giedd et al. Dynamic mapping of human cortical development during childhood through early adulthood. *DNAC*.

다른 뇌 부위는 비교적 빨리 발달하지만 **전두엽**은 특히 20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발달
청소년기에 본격적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매우 중요

외상(트라우마)의 심리사회적 영향

- ◆ 불신
- ◆ 우울, 불안
- ◆ 낮은 자존감
- ◆ 발달 지연
- ◆ 고립과 위축
- ◆ 과잉행동
- ◆ 학습과 집중의 어려움
- ◆ 공격적 행동
- ◆ 조종하는 행동, 권위에 대한 반항, 도전적 행동 등
- ◆ 자해, 자살 시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중요성

- ◆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의 어려움-> 성인기 다양한 문제로 발전 가능성 (Feehan 등, 1995)
- ◆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높은 비율에 비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은 낮음(Leaf 등, 1996)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는 가족의 기능 저하, 부모의 정신건강을 약화와 관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 ◆ 전체 아동청소년의 대략 10%가 정신건강 고위험군
- ◆ 우울, 불안증상의 증가
- ◆ 한국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
- ◆ 최근 청소년 자해행동 문제가 급증하며, 전사회적으로 자해 대유행 현상까지 거론됨
- ◆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상황과 사회적 부분이 청소년 정서행동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음.

정신건강과 학교적응

- ◆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학업 수행도나 학교 이탈과 관련성이 있음**
- ◆ 낮은 학업성취도와 잦은 결석은=> 아동 청소년기에 보일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신호가 되기도 함. (DeSocio J, Hootman J. Children's mental health and school success. J Sch Nurs 2004;20:189-196)
- ◆ 정신건강이 안정적인 청소년들이 학업성취와 학교참여 및 학업유지 수준이 더 좋음 (Lee SY, Han MR. School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terms of dual-factor model of mental health. Korean J Youth Stud 2014;21:195-218.)
- ◆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은 과잉행동이나 비행을 보이기도 함. (Fletcher J, Wolfe B. Child mental health and human capital accumulation: the case of ADHD revisited. J Health Econ 2008;27:794800.)

정신건강과 학교적응

- ◆ 출석문제를 가진 아동의 2/3는 심한 의존성과 감정적인 미성숙을 보였고, 1/5의 아동은 불안이나 기분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출석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10의 아동만이 이러한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음. (Berg I, Butler A, Franklin J, Hayes H, Lucas C, Sims R. DSM-III-R disorders, social factors and management of school attendance problems in the normal population. J Child Psychol Psychiatry 1993; 34:1187-1203.)
- ◆ 학교 거부 행동을 보이는 10대들은 신체적 불편감을 자주 호소함.
- ◆ **학교부적응은 행동 문제와 더불어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정신건강이 학업성취도와 학업중단율에 미치는 영향

방은주¹⁾ · 김두형²⁾ · 노법래¹⁾ · 유혜승¹⁾ · 장지현¹⁾ · 하경희¹⁾³⁾ · 박은진¹⁾⁴⁾ · 홍현주¹⁾⁵⁾

한림대학교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¹⁾ 희망가득 정신과의원,²⁾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³⁾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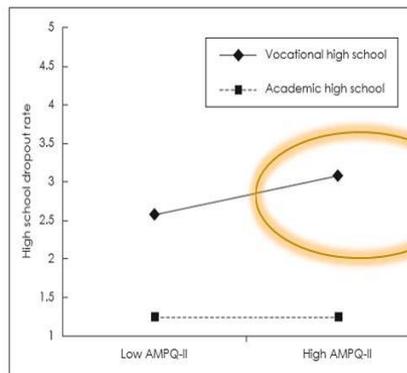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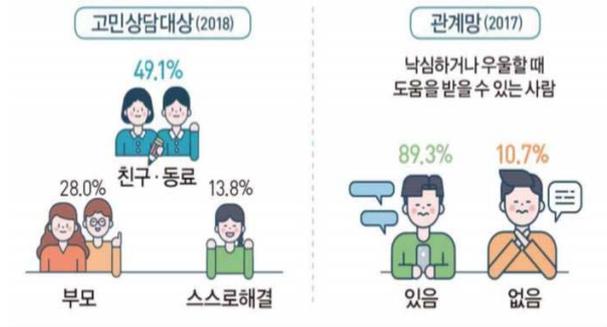


Fig. 1. The interaction effect graph of high school type. AMPQ-II: Adolescent Mental Health Problem-Behavior Questionnaire-II

2019 청소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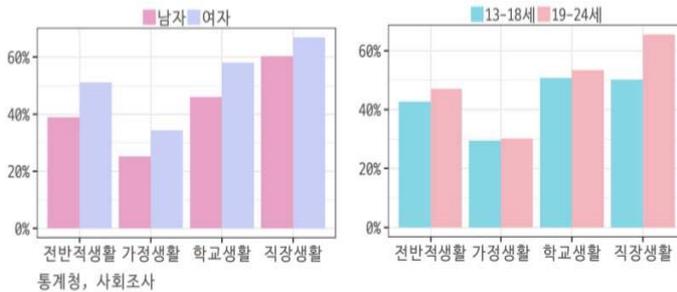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9 청소년 통계

통계청 여성가족부

<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2018) >



2018년 13~24세 청소년의 45.0%는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

2019 청소년 통계

통계청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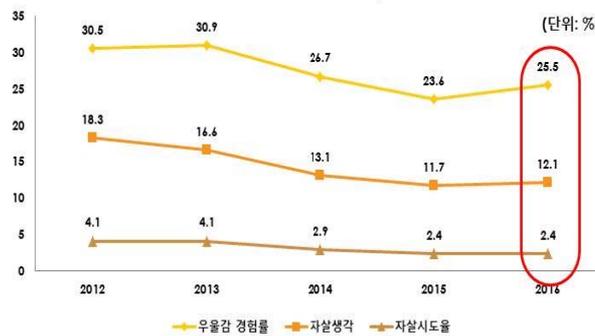
<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 >



2018년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7.1%

청소년 우울감, 자살생각, 자살시도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2012	2013	2014	2015	2016
우울감 경험률(%)	30.5	30.9	26.7	23.6	25.5
자살생각(%)	18.3	16.6	13.1	11.7	12.1
자살시도율(%)	4.1	4.1	2.9	2.4	2.4

자해의 증가

중학생 4만505명 '자해 경험'... 100명 중 7.9명



왜 자해를 할까?

- ◆ 압도적인 감정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거나 혼란스러운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 ◆ 무감각하고 공허한 존재라는 끔찍한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 ◆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 - 깊은 자기 혐오

자해는 감정의 균형을 다시 찾으려는 방법
극단적인 감정의 고통이나 통제불능에 대한
청소년 나름의 해결책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의 특성

1. 최근 증가 추세 (자살/자해) vs 줄어드는 청소년 인구
2. 청소년과 부모세대간의 이해와 소통의 부재
3.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 문제
4. 급격한 문화의 변화 (인터넷, SNS, 동성애 등)
5. 청소년의 고통을 어른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움 (청소년: 표현의 제한, 성인: 민감도가 낮음)
6. 변화를 알아차린 시점에서 자살 행동에 이르는 시간이 짧음
7. 명백하지 않은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유발요인이 되기도 함
8. 주변들에게 파급 효과가 큼
9. 집단성향(clustering) 및 미디어의 영향이 높음

정신건강문제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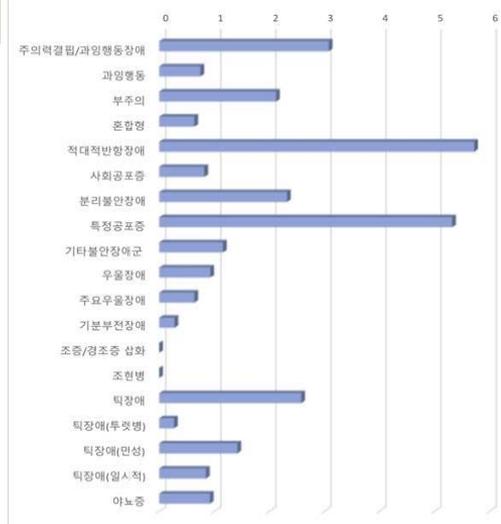
4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4개를 통해 총 3951명의 학생을 조사.

표 1. DISC 1년 유병률

진단	빈도(백분율)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33 (3.08%)
과잉행동	7 (0.75%)
부주의	20 (2.12%)
혼합형	6 (0.64%)
적대적반항장애	58 (5.72%)
사회공포증	9 (0.82%)
분리불안장애	25 (2.32%)
특정공포증	58 (5.32%)
기타불안장애군	10 (1.16%)
우울장애	10 (0.93%)
주요우울장애	7 (0.64%)
기본부전장애	3 (0.28%)
조증/경조증 삽화	0 (0.00%)
조현병	0 (0.00%)
틱장애	27 (2.58%)
틱장애(뚜렛병)	3 (0.27%)
틱장애(만성)	15 (1.42%)
틱장애(일시적)	9 (0.85%)
아노증	10 (0.92%)

· 기타불안장애군: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병발안장애, 선택적함구증, 갑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그림 1. DISC 1년 유병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실태

표31.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실태

	유	무
전문가 도움	214 (17.31%)	1022 (82.69%)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38 (3.09%)	1190 (96.91%)
학교내상담교사	59 (4.38%)	1287 (95.62%)
다른정신건강전문가	77 (5.99%)	1208 (94.01%)
비정신건강의학과 의사	3 (0.23%)	1330 (99.77%)
한의원	4 (0.31%)	1306 (99.69%)
일반간호사	1 (0.08%)	1311 (99.92%)
종교인	5 (0.38%)	1305 (99.62%)
무당	1 (0.08%)	1311 (99.92%)
약사	44 (3.38%)	1256 (96.62%)
약물 치료	86 (4.99%)	1636 (95.01%)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82.69%는
도움을 받지 못함.

경기 고양 위더스 학교

치유대안학교

경기고양위더스학교



통합적 개별 사례관리

의학적 치료 모니터링

지역사회자원연결

가족개입,
개별 사례관리 지속

경기고양 워더스학교

학생의 특징

1. 트라우마의 경험이 많다.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상처의 누적)
2. 대인관계의 스트레스가 높고 대처에 취약하다.
3. 문제해결, 대처 능력의 경험이 적다.
4.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조절이 어렵다. (자해, 자살, 우울, 감정기복, 피해의식 등)
5.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누적된 경우가 많다.
6. 병리, 동반 정신건강 어려움이 많다.
7. 가족의 경우 매우 지쳐 있고 갈등, 스트레스가 많다.

경기고양 워더스학교

주요 진단명

1. 우울증
2. 불안증(사회공포증, 강박증,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3. 조울병
4.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5.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6. 조현병 등

경기 고양 위더스학교

효과가 있는 학생의 특징



1. 제 시간에 등교를 할 수 있는 학생
2. 수업시간에 참여가 원활한 학생
3. 적어도 수업을 방해하지는 않는 학생
4. 비행, 품행문제가 적은 학생
5. 인지행동 및 문제해결프로그램에 반응이 좋은 경우
6. 적응문제나 정신건강 증상의 기간이 짧은 경우
7. 약물치료와 의학적치료, 상담치료가 안정적으로 병행되는 경우
8. 가정내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지지체계가 안정적인 경우)

요약

- ◆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경우 정신건강 문제의 어려움 확인이 필요
- ◆ 정서행동의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 이해와 도움이 필요
- ◆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위한 교육과 치유의 기회가 필요
- ◆ 수업 내용, 등교에 대한 융통성이 더욱 필요
- ◆ 대안교육의 의미, 구성에 대한 고민



감사합니다.



03

별무리학교 사례

박현수 | 교장

1강.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의 의의와 구조



별무리학교 교육연구소장 박한배



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질문

교육신조(믿음, 신학적 기초, 철학, 세계관, 인간관, 지식관, 시대관)는 무엇인가?

교육목적(궁극적 인간상)은 무엇인가?

(어떤 변화를 바라는가?)

어떤 마음, 지식, 태도, 역량을 구비시키고자 하는가?

무엇(지식, 원리, 세계관, 세계, 사람, 자기 자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별무리학교 이야기 상자



- #1. 별무리마을 속 별무리학교 이야기
- #2. 별무리학교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이야기
- #3. “The Only For All” 프로젝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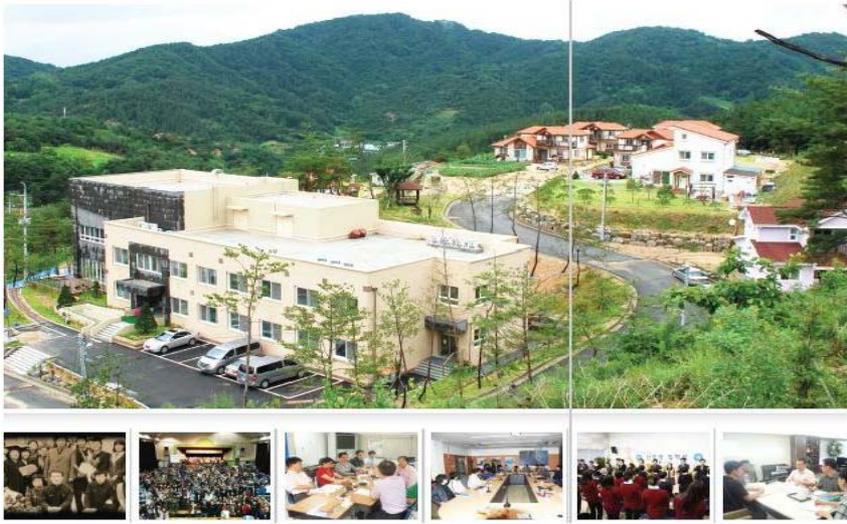


#1. 별무리마을 속 별무리학교 이야기

- 별무리 마을 조성: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조성
- 별무리학교 및 공립 교사 포함 약 160여 명 거주
- 공립학교 교사 700여 명의 20억 기금 마련
- 교육의 본질 회복, 혁신성과 공공성 지향
- 2012년 개교 / 초 5, 6, 7학년 60여 명
- 공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과 공동 연구, 연수
- 2018년 별무리학교: 학생 수 268명, 교직원: 50여 명
- 2018년 충청남도교육청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
- 대안교육진흥법 제제화 추진
- 금산대안교육거점도시육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



기독교사들의 오랜 기도와 헌신으로 설립된 학교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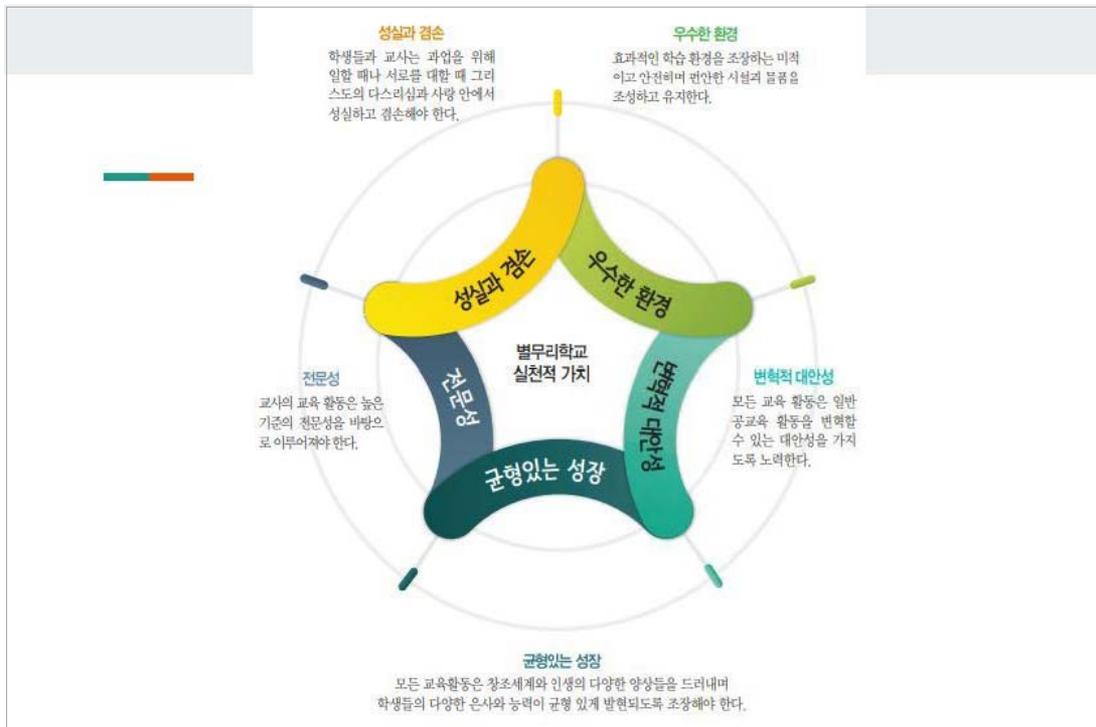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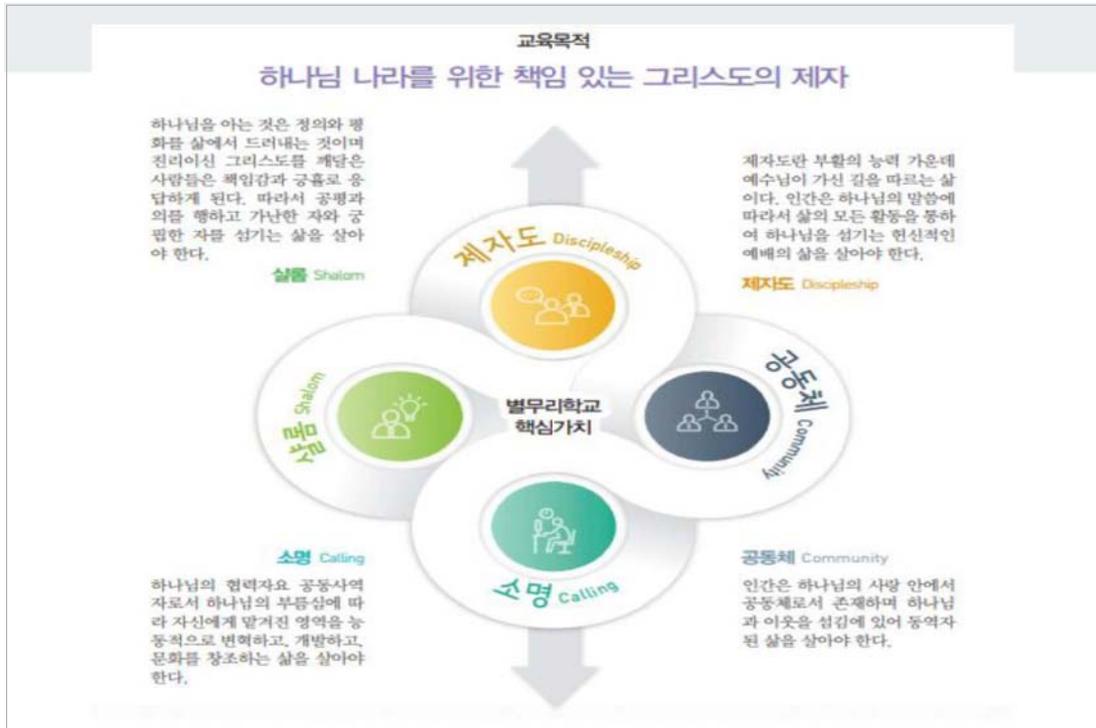


기숙형 전원학교



초등, 중등, 고등 통합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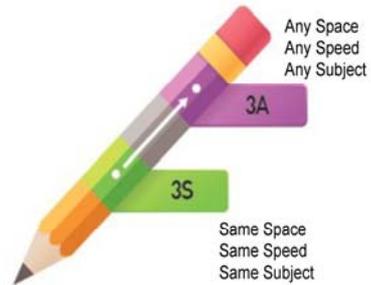


#2.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이야기

미래 교육을 위한 paradigm shift

- 학생의 관심사와 동기, 필요, 수준에서 출발
- 선택과 설계, 실행과 변화, 성공 경험 제공
- 능동적 참여로 학습의 주체로 성장
- 학교는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습 체계와 지원시스템 제공

- ◆ 상수 : 철학과 가치, 학생의 유의미한 성취
- ◆ 변수 : 그 외 모든 것



개별화(맞춤) 학습 (Personalized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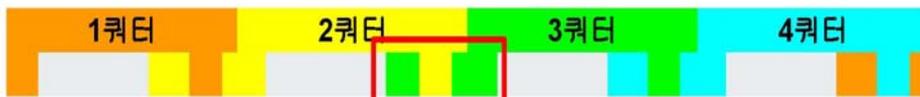
#2-1. 쿼터 학점제

- 2016년부터 시행, 1년을 4쿼터(9주차)로 운영
- 학점형태 : 필수학점, 선택학점
- 필수학점 6학점 : 가치, 역량, 운동 각 2학점 수강
- 선택학점 17학점 : 교사개설 또는 학생 개설 수업
- 8주 학습 수행, 9주차 쿼터 평가 발표회, 각종 대회



<맞춤형교육과정>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 프로세스



순서	활동	단계	대상	시기
1	교과설명회	설계	3쿼터	2쿼터 6주차(금요일)
2	교과멘토링	설계	3쿼터	2쿼터 7주차(금요일)
3	성적확인	평가	2쿼터	2쿼터 8주차(금요일)
4	쿼터발표회	평가	2쿼터	2쿼터 9주차
5	수강신청완료	설계	3쿼터	2쿼터 9주차(수요일)
6	수강정정	설계	3쿼터	3쿼터 1주차

#2-2. BLMS / Google Classroom

- 온라인 학사관리 및 시공간, 교수학습자 연결
- BLMS(Byulmuri Learning Management System) : 시공간, 인적자원 조율 및 관리
- Google Classroom: 학습 공동체, 상호 소통
<<https://classroom.google.com/h>>



<맞춤형 교육과정>

#2-3. 어드바이저 및 멘토링 제도

- 1명의 어드바이저 + 7 ~ 10명 학생=1개 어드팀
- 학습의 설계, 실행, 평가 단계의 성공적 학습 경험 제공
- 감정, 학습, 진로 코칭, 외부 교육기관 및 전문가 멘토 연결
- 동료 어드바이저와의 연합 및 협력 코칭, 학부모와 공유



<맞춤형 교육과정>

시간표

시간	구분	월	화	수	목	금	
07:00-07:30	아침활동	아침활동					
07:30-08:30	아침식사	아침식사					
08:30-09:00	아침독서	체크인	아침독서	예배	아침독서	아침독서	
09:00-09:35	1교시	목상	목상	예배	목상	목상	
09:45-10:30	2교시	※ 어드바이저 미팅 시간 교사 개설 교과 개설 할 수 없음				재량	
10:35-11:20	3교시					재량	
11:25-12:10	4교시					체크아웃	
12:10-13:10	점심식사	점심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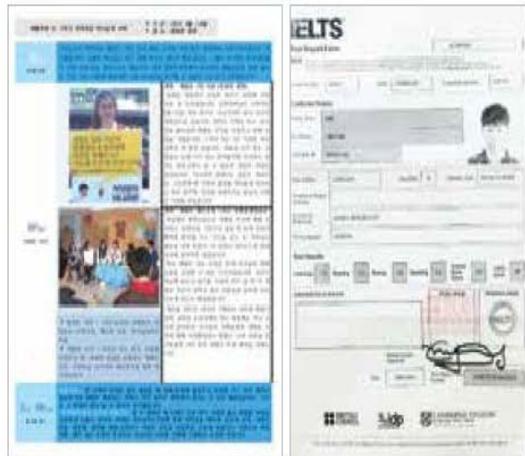
시간표

13:10-13:55	5교시					
14:00-14:45	6교시					
14:50-15:35	7교시	※ 가치 (필수)	※ 역량 (필수)		자치	
15:40-16:25	8교시	※ 필수교과 외 개설불가	※ 필수교과 외 개설불가		자치	
16:30-17:15	9교시	※ 운동 (필수)	※ 교사는 프로젝트교과	※ 운동 (필수)	동아리	
17:20-18:05	10교시	※ 선택교과 개설가능	만 개설가능	※ 선택교과 개설가능	동아리	
18:05-18:55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21:00	저녁활동	※ 교사는 선택 교과 개설 가능				
21:00-21:10	청소시간	청소시간				
21:10-21:30	저녁및반성	저녁및반성				

학습계획서

작성자	※ 멘토 또는 학생이 개설 할 수 있다.				
멘토	※ 모든 교과에는 멘토가 지정되어있어야 한다.				
교과/과목	※ 양식참고	강좌명	※ 수업의 목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름		
개설배경	※ 진로와의 연관성 및 학문적 가치 기술			가치분야	※ 분야선택표
				역량분야	
학습내용	총괄목표	※ 내용과 행동이 들어간 진술을 사용한다.			
	1주차	※ 교과에서 선정된 범위를 단원명 또는 활동 단위로 기술			
	...				
	8주차				
수강대상	※ 학년/그룹	수준	※ 난이도	신청학점	※ 1시수 1학점
교재	※ 수업에 필요한 교재				
평가계획	평가자	비율	평가계획		
	본인	※ 비율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한다.	※ 구체적인 평가 시기와 방법을 명시하여 작성한다. 1) 자료 : 선다형, 서술형, 논술형 문지를 통해 평가 2) 소논문 : 연구방법론에 근거한 논문형태의 보고서 3) 포트폴리오 : 개인 및 팀 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 4) 기타 : 평가자의 관측 및 피평가자의 구술등을 통한 평가		
	멘토				
	어드바이저				
평가기준	※ 등급을 표시하는 기준을 명시한다.				

TWO 트랙 평가시스템





#3. 별무리학교의 The Only For All 프로젝트 이야기

- 상위 10%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학교 생활 속에서 The Only For All 이야기
- 자기주도적인 학습 과정 속에서 사고력과 자기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향상
- 학생 주도의 창의적, 공공적, 협력적인 프로젝트 도전

<교육부 기회보장과, 고교혁신과 연구사 방문>



#3-1. 우리들의 The Only For All 프로젝트 이야기

책드림 프로젝트

국제 개발 협력 동아리 LOW 미술 동아리 미친 동아리

책드림 프로젝트는 별무리학교 국제 개발 협력 동아리 "LOW"와 미술 동아리 "미친 동아리"가 함께 협력하여 동화책 만들기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사회인 금산의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교우관계와 경제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 동화책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현재 저희 프로젝트 팀은 베트남팀, 필리핀팀, 중국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 우리들의 The Only For All 프로젝트 이야기

로템나무 동아리

어우러히 학교 불가촉천민 아이들 교복 후원

"로템나무"는 2017년 1월 별무리 고등학교 11학년 학생들의 네팔 선교 활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로템나무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네팔 어우러히 학교에 다니는 총 70명의 불가촉천민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네팔의 카스트제도는 1963년에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네팔 사회에서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에서의 차별이 가장 심각한 상태이고, 불가촉천민 달리드들의 대부분은 교복은 커녕 학교 교육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선교활동을 계기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복 마련 비용 후원을 위한 영상 시나리오를 기획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Rodem Tree



#3-3. 우리들의 The Only For All 프로젝트 이야기

IT 동아리

시각장애인 3D사진 제작

IT 동아리는 올해 1쿼터에 3D 모델링과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의미 있는 것을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의 문제에 조금이나마 공감하기 위해 대전 맹학교 졸업생 14명과 소통하였고, 그들과 함께 기억하고 남기고 싶은 것들을 모델링과 프린팅을 통해 제작하는 '시각 장애인 3D 사진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대전 맹학교 졸업생 14명 가운데 11명에게 3D 모델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졸업선물

- 별무리학교, 대전맹학교 졸업생들에게 3D 졸업앨범 전달 -

Kids & Dream 프로젝트

어린이집 동아리

Kids & Dream 어린이집 프로젝트는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교육을 고민하는 동아리입니다. 주 1회 별무리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만 2세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은 돌보는 것을 넘어 교육계획서 작성, 교구 만들기 등 다양한 유아 교육의 현장을 기획하고 구성하며 실천하는 일을 스스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25

이루길 프로젝트

이루길 학교

이루길 프로젝트란 교육 분야에 관심을 둔 학생들이 모여 진정한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가장 이상적인 가상의 학교를 설립하고 그 안에 교육철학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은 "이루길 학교", 교육의 슬로건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빛과 소금" 그리고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며 주의 나라를 실현하는 자녀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26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로역량의 개념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하나님 나라의 책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음 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식을
구비하는 것

진로역량의 구성요소

- 자기이해역량
- 진로탐색역량
- 진로실천역량
- 성찰 및 디자인역량
- 신앙과의 통합역량

자기 이해역량 : 자신의 소질과 적성과 관심을 파악하는 능력

진로탐색역량 :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조사하고 상당하고 실제적인 체험을 하는 등 세계에 대한 경험을 넓혀가는 능력

진로실천역량 : 구체적인 지식과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꾸준히 실천하는 능력

성찰 및 디자인역량 :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실천 결과를 기록하고 정리하며, 성찰하여 유의미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능력

신앙과의 통합역량 : 자신의 진로와 진학을 소명적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적 삶과 통합하는 능력

하나님나라로 'U·turn' 하라! **유팀십**

샬롬 ! 나를 위한 인턴십에서, 하나님나라를 위한 유팀십으로 !!

유팀십은, 내 인생의 배와 세상을 하나님나라로 U·turn 하도록 돕는 인턴십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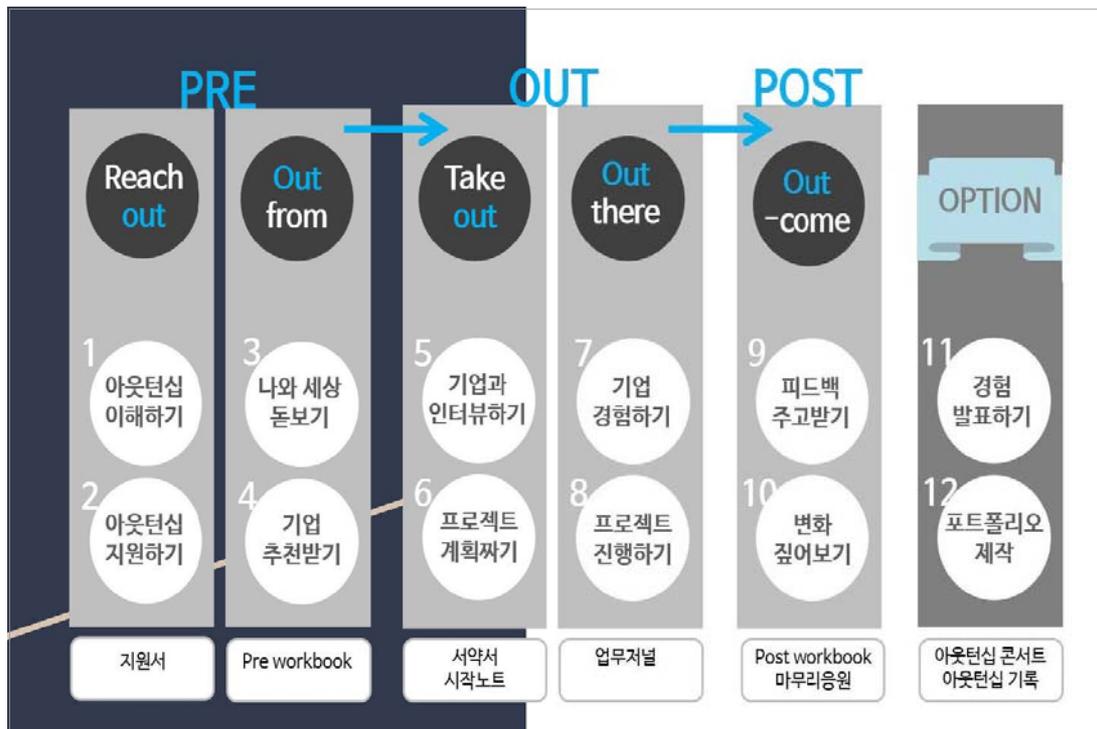


U·Turnship 정의

- I. U턴 : 나와 직업과 세상을 하나님나라로 U턴 시키는 변혁적 리더십 인턴프로그램
- II. Your turn : 이제 그대 차례가 왔다.
- III. Turning point :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으라 !!

그대 인생의 굴절점, 반환점의 기회가 될 인턴십 !

그대 인생의 배와 왜곡된 세상을, 하나님나라로 U턴시킬 변혁적인 리더십을 훈련하는 소명·별무리 공동기획 프로그램



교육부 학제제 관련 실무 연구자 컨설팅 지원

2018년 3월과 4월, 2회에 걸쳐 교육부 기획조정과장과 실무진, 고교혁신과 연구자들이 범부리학교를 방문하여 학제제 운영의 사례를 분석하고 교육부 정책 구현을 위한 사례를 수집하였음. 공립학교 학제제 실현을 위한 실제적인 사례와 시사점을 제공함.

학생 교류

- 2017 캄보디아 비전방향을 통해 Prince international school과 캄뎡 포 유치원과 IT당자수 중학교를 학생들이 담당하여 교육활동 및 적정기술 적용을 하여 협력해냄.
- 2015 전국 대인교육연합회 개회를 위한 학생 대표 활동 지원. 전국대인교육 연합회 참여를 통해 대인교육의 방향을 잡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무스를 만들고 대인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캠페인을 벌임

MOU

캄보디아 이삭공동체 MOU 체결

범부리학교는 캄보디아 이삭공동체 제김기대 선교사와 협력 연구, 학생 교류, 교육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범부리학교는 향후 캄보디아 해외이동수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예정임.

충청남도 교육청 MOU 체결 및 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

2018학년도 충청남도 교육청은 범부리학교를 학교밖 청소년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연 1,000만원의 운영지원을 지원하였고, 5명 이내의 학생이 범부리학교에 머물며 범부리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할 수 있게 되었음.

별동천 문화센터 설립

안행사에서 실시하는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범부리학교 주변에 심동천, 수정리 두 마을과의 교류의 장소로 4억의 지원을 받아 2018년 6월 별동천 문화센터 완공.

스마트팜(smartfarm)랩 설치 및 지역 농업인 IoT 교육

범부리학교 학생들이 축적한 IoT 역량과 금산지역의 농업 기반을 융합하기 위한 학교자체 스마트팜랩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 팔기, 바섯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스마트팜 기술을 교육하고 있음.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학교주변에 입주한 범부리마을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인문학 수업 지도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과 협력하여 학생들을 가르침

전국 대인교육 연합회 교사 연구 개최

전국 기독교 대인교육 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PBL, 위업을 개최 및 지원

PBL(Project Based Learning) 중점학교 운영

삼플대인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PBL(Project Based Learning) 중점 학교로 참여하여 교사들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기독교적 교과과정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

교생 실습 및 교사 인턴십 운영

한동대, 경인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부산교대 예과사범을 대상으로 지속적 교생실습 프로그램 운영. 예과사범을 위한 인턴십, 수련, 견학, 세미나 운영함.

기계제작 경진대회

한국기계연구원 주최한 초·중·고 기계제작 및 조립 대회에 참가하여 금강으로 대전시교육청, 장외교 및 영남대학교를 수상함

사단법인에서 최우수 수상

2018년 6월, 한국기계교육재단의 사단법인화원에서 주관하는 (한국 소년 마에인, 여학생 속의 기계) 사단 법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300여 명이 넘는 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영남대학교 최우수상을 받았음.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활동

2016 제 5기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사파루 기자단 활동하며 학교 소식 및 생활문 등 학생 생활의 이목을 기사화함

Coy Korea 2017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서 공동 1위 평가

범부리 고등학교 창업 동아리 학생들은 2017 COY Korea가 공동 1위를 차지하여 국제 대회 대표로 선발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음.

핀/이세안 청소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 참여

과학기술발전연구원 주최 주관하고 미래교육포럼회가 후원한 핀/이세안 VISION INNOVATION 공모 본선 진출

2017년 전국 IoT 디자인 콘테스트 대상 수상 - Dom Control System

범부리고등학교 27 동아리 학생들이 2017년 전국 IoT 디자인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1등의 영광을 수감함. 이번 대회는, 창의 설계 및 제작능력, 모두 평가하는 것. 대회별은, 학생들은 우리학교의 클라우드의 코드, 습도, 온도 등을 사물인터넷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함.

DCS (Dome Control System)

국제개발협력 참가

BOA(Brainstorm Global Action)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참여로, 대한 비전 실현을 통해 교육개발협력, 적정기술의 집중, 사회적 기업을 통한 임팩트 투자의 필요성을 깨움

교보 영상제 금상

학생 제작 영상제목을 통한 공모전에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함

축구대회

2015년 금강군 축구협회 주관 대외 최우수, 2016년 금강군 축구협회 주관 대외 최우수, 2017년 가림대학교 대외 학교 연합축구대회 주관 대외 최우수, 2018년 가림대학교 대외 최우수

심장 주니어 소프트웨어 학생동아리 선정

심장에서 지원하는 심장 주니어 소프트웨어 동아리에 학교로 선정되어 학생들의 코딩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deep thinking 기반의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추진

2017 국제교육개발협력 전국 포럼대회에서 대상 수상

2017년 11월 10일 평택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교육개발협력 포럼대회에서 범부리학교도 포럼이 내담과 온산, 특명상을 수상했으며, 영남대학교의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기독교 교육개발협력 공동주최하였음.

2017 국제교육개발협력 전국 포럼대회에서 대상 수상

2017년 11월 10일 평택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교육개발협력 포럼대회에서 범부리학교도 포럼이 내담과 온산, 특명상을 수상했으며, 영남대학교의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기독교 교육개발협력 공동주최하였음.

기업에서 배우는 생생한 직업체험프로그램, 유턴십 참가

매년 여름방학에 열려, 범부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회에서 일하는 기업에 직업체험을 하여 인턴십을 갖는다. 유턴십은 체험은 교육이론을 통한 인턴십, 교수도 현장교육 경험과 이론을 통해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이해하고 하나씩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정한다.

기업에서 배우는 생생한 직업체험프로그램, 유턴십 참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

-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질의 응답



감사합니다.





04

소명중고등학교 사례

신병준 | 교장

소명중고등학교 사례

1. 너무 불쌍한 우리 아이들

1983년 3월 1일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지중학교에서 첫 도덕 교사로 2-4반 담임을 맡으면서 새내기 교사로 시작하였다. 그 후 1985년 8월 22일부터 1987년 8월 31일까지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군내중학교를 거쳐 1987년 9월 1일부터 1988년 2월 28일 목포상업고등학교, 1988년 3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1,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담임하였고, 담임한 학생들 가운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학생들, 알콜 중독인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는 학생들, 아버지가 교도소에 간 학생들, 가출한 학생들, 꿈이 없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학생들, 조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고 있는 학생들, 아빠 엄마가 가출한 학생과 부모님 때문에 가출한 학생들, 성적이 낮아 비관하며 꿈조차 꾸지 못하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극히 제한적이었다. 같이 기도하며, 우는 것 밖에 없었다. 줄지에 '올보 선생'이 된 것이다.

그래서 1989년 3월 1일 전주 신흥중학교 2학년 9반 담임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 '사랑이 넘치는 교실'이었다. 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제자들,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제자들과 함께 사랑이 넘치는 교실을 일구면서 '한 꿈'을 학생들과 꾸기 시작한 게 '사랑이 넘치는 학교', '행복한 학교'였다. 56명의 학생들은 저마다 자기가 그리는 '학교'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5쪽 짜리 분량의 작은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 꿈을 함께 꾸기 시작하였다. 그 꿈을 꾀지 20년 만에 2008년 8월 31일 26년의 교사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샘물중학교'에서 그 꿈은 현실로 다가왔다.

2. '소명교육공동체.소명학교'탄생 과정

2008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1년 5월 24일 샘물중학교 교장직을 사직하고 "좋은 교사가 좋은 학교"라는 새롭게 탄생될 학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너무 외롭고 황무지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3년간 샘물중학교에서 경험은 너무 소중한 자산이었다. 가정방문, 행복한 성적표, 국토순례, 학부모와 활발한 의사소통 등 공교육에 있을 때 하고 싶은 교육활동을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하는 것은 행복한 경험이었다.

새로운 대안학교를 시작한다는게 처음엔 참 막막했다. 3년의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새로운 학교를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포기하고 다시 전주로 내려갈까?' 고민도 했다. 하지만 행복한 기독교교가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디엔가 있을 거라는 희망, 23년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소중한 약속을 생각하며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았을 때 전에 근무하던 학교의 세 가정 부모님들이 2011년 5월 26일 찾아와“선생님이 꿈꾸는 행복한 학교를 함께 세우고 싶다.”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었다. 그 만남을 시작으로 매주 학교 설립을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작은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 7월 1일, 8명(김영생, 김종은, 박경은, 이시원, 이효선, 장슬기, 최경산)의 교사들, 이들은 과거 공교육에서 사직하였고, 샘물중학교에서 몸 담았던 6명의 교사와 샘물중학교 교사로 임명되었지만, 포기한 한 선생님들이 새로운 학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다고 찾아 왔을 때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고맙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다. 함께 교육과정을 준비하며, 이름도‘소명교육 공동체.소명학교’지었다.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세우는 행복한 학교를 세우고자 했지만, 평범한 교사들에게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그 때부터 두 분의 아버지와 함께 용인시 기흥부터 수지, 분당까지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수많은 부동산을 찾아다니다가 거리의 플래카드 속 연락처를 통해 용인 수지 동천동 에서 땅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 건물을 지어 임대해 주겠다고 하여 2011년 7월 19일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7백만원으로 계약할 것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내 수중에는 단돈 몇 만원도 없었다.

이때, 감사하게도 한국기독교대학인회(ESF)라는 선교단체 산하 기독교사 모임인‘성서교육회’회장인 송원용 선생으로부터 온 전화였다.“선생님, 새로운 학교를 세우려고 하신다면서요. 우리 모임에서 1999년부터 좋은 사립학교 세우자고 적금을 모으고 있는데 선생님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전체는 4천만원인데 우선, 2천만원 먼저 보내고 12월 말에 2천만원 보낼게요. 힘내세요.”후배 초등교사 송원용 선생으로부터 들려온 목소리를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아, 이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있을까. 농협으로 달려가 통장을 확인해보니 또렷이 20,000,000원이 찍혀 있었다. 감격스런“종자돈(Seed Money)!!”

이 일 이후로 학교 설립에 대한 준비는 탄력을 붙게 되었다. 교사들이 1주일에 2-3차례 저녁마다 모여 교육과정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홍보지도 만들고, 입학설명회 장소도 섭외도 하고, 활기차게 움직이게 되었다. 17차례 입학설명회를 통해 60여명의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비인가 대안학교인‘소명학교’변변한 건물도 없는 학교에 소중한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감격스럽고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2년 3월 1일 개교식 및 입학식을 준비하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학교를 시작하려고 건물도 민원으로 인해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3월 1일 개교식 및 입학식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준공검사가 날지 기약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위기의 때 하나님 아버지는 개교식과 입학식은 그동안 설립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주신 ‘염광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다. 염광교회 김재학 목사님이 개교 및 입학식 축하 설교를 해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겨우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후 일정은 기약할 수 없어 암담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3일간 ‘소명해오름’을 통해 학생들을 만났고, 다시 1주일 가정방문으로 보낸 뒤에야 겨우 상가 2개 층을 임대해 2일 만에 인테리어와 청소를 마치고 2012년 3월 12일 감격적인 첫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참으로 마음이 타 들어가는 시간이었지만, 8명의 교사와 60명의 학생, 56가정의 학부모가 함께하는 ‘소명교육공동체.소명학교’는 천신만고 끝에 어렵사리 시작하였다.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소명교육공동체.소명학교는 2019년 7월 현재 강사 포함 40여명, 학생 213명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배움의 길, 소명의 길을 가고 있고, 그동안 5회 졸업생 140여명을 배출하였다. 소명의 교사와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교육을 넘어 국토순례, 통합답사를 통해 우리나라 곳곳을 누비며 체험과 배움을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해마다 7월이면, ‘소명 그랜드 투어’까지 배움의 깊이는 유럽 전역까지 펼쳐 나간다. 소명의 교육은 대한민국을 넘어 통일한국을 향해 길을 이어간다. 10학년 평화세대 비전트립에 이어, 11학년 교육과정인 ‘통일세대 비전트립’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탈북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탈북 청소년을 섬기고 있으며, 캄보디아 청소년도 2년 동안 섬길 수 있었다. 아울러, 영국, 중국, 필리핀, 3회에 걸친 남아공 단기선교, 2회에 걸친 일본 비전트립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3. ‘교육 공동체’를 일궈가는 ‘소명교육공동체.소명학교’

좋은 교육을 하려는 것은 좋은 만남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대화하고, 이해하고, 이해해 주어야 좋은 만남이 되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국 교육이 무너지게 된 이유를 수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한다. 우리 모두는 ‘교육’에 관한 한 전문가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국영수로 한 줄로 줄 세우기, 잘못된 교육정책,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목표가 좋은 대학가기, 교사들의 질 낮은 교육, 교육대 사범대 교사 양성 교육의 문제, 학교 시설, 문제 풀이 교육, 교육부의 교육정책 부족 및 혼선, 정부의 교육투자 부족 등 수 없는 진단을 하고, 또 한다. 이런 이유를 뛰어넘어 학교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육 주체들이 만나야 한다. 머리를 맞대어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소통해야 한다. 소명 교육 공동체는 가정방문을 시작으로 ‘좋은 만남, 좋은 교육’을 세워가고 있다.

1) 좋은 만남, 행복한 교육-학교와 가정의 만남, 교사와 학부모의 만남

교육 공동체를 일궈가는 일은 쉽지 않다. 신앙, 이념, 교육철학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현재, 강사 포함 40여명, 학생 213명, 400여 학부모(200여 가정)가 '교육 공동체'를 일궈가고 있다. 교육 공동체를 일구는 첫 걸음으로 '가정방문'을 매년 3월 중순 시행하고 있다. 올해로써 8번째다. 가정방문은 멘토 교사가 멘티(학생)의 부모를 가정으로 찾아간다. 신앙-교육철학을 나누고 그 간격을 좁혀가는 좋은 만남이다. (다음, 제가 실천한 가정방문 경험 사례이다.)

“가정 방문, 아이들 사랑의 첫걸음이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은 꿈을 잃고, 선생님들은 가르칠 의욕을 잃고, 학교의 일상으로부터 탈출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를 포기할 수 없다. 아직도 우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며,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이해하지 않고 교육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생활기록부 같은 공식문서만으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가정방문은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촌지와 같은 불의한 관행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라진 전통인 가정방문, 주어진 일도 감당하기 벅찬 고단한 교직생활이지만, 우리의 희망이 되어 어두운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 간절한 기도에 목말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좋은 만남, 행복한 교육'이라는 꿈을 꾸며 가정방문, 학교와 가정을 이어주고, 멘토와 학부모, 멘토와 멘티(학생)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인 '가정방문', 그래서 소명 학교는 해마다 3월이면, 멘토들이 멘티인 가정을 찾아 학부모와 학생을 만나러 간다. 그것이 함께 교육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강한 길이기 때문이다.

“영심(가명)이를 붙잡고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1985년 전남 진도 공립학교에 재직할 때 부터 시작한 가정방문, 저는 그때, 가정방문을 하면서 너무도 많이 울었다. 섬 마을 가난하게 살아가는 아이들, 뱃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10명이나 되는 우리 반 아이들을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살 때 아버지를 잃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목이 메이고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 집을 방문하고 대문을 나서면서 저는 여러 날 울보가 되어 힘없이 돌아왔다. 지금도 잊을 수 없다. 1986년에 만난 영심이, 그 아이의 생모(生母)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세 번째 새 어머니조차 암으로 돌아가실 지경이 된 불쌍한 아이였다. 교무실 제 책상 위에다 내일부터 학교를 그만 두겠다고 써 놓고 울며 가던 영심이를 붙잡고 저는 하염없이 울며 기도하였다. 지금도 기억나는 1986년 3월 28일, 그날은 영심이의 집을 방문한 다음 날이었다.

어디 영심이 뿐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큰 아버지에게 맡겨져 생활하다가 소년원에 들어간 영노(가명), 알콜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오고 싶었던 학교를 오지 못해 3월 개학 때부터 만날 수 없었던 송일(가명)이, 아이들의 가정을 돌면서, 아이들의 힘겨운 생활이 시리도록 아프게 내 마음을

파고 들어왔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아이들의 선생이 될 수 있었다. 아이들의 집을 돌면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한 제 모습에 괴로웠다. 그러나 간절히 바란다. 아이들을 찾아가는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길, 그 아이들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몸부림이 되길 바란다. 내 교직생활이 다할 때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저는 계속 가정을 방문할 것이다(저의 가정방문 경험-1985년부터 2006년까지).

2) 학교-가정의 소통을 통해 '교육 공동체' 세우기1

2월 말, 교육과정 설명회를 가지면서 '학교-가정'의 소통은 시작한다. 3월 중순 '가정방문' 그 후 학부모 교육(야간)을 16차례 정도 시행하면서 가정-학교, 교사-학부모의 만남은 계속된다. 주간에는 어머니들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2주 1회씩 모임을 이룬다. 멘토(교사)-멘티(학생)-학부모, 교육 공동체는 정기적으로 1년 4차례 만나며, 수업을 개방하여 1주일 동안 수업을 참관하여 학부모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3) 학교-가정의 소통을 통해 '교육 공동체' 세우기2

학부모(아버지)들은 '소명교육선교회'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한다. 소명 교육 공동체의 법적 최고 결정기구이다. 교사 4인, 학부모 4인, 외부 인사 4인,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4인, 학부모 4인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재정적인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여기 '낮은 울타리'(소명 교육공동체 규칙)도 학교운영위원회 교사 4인, 학부모 4인, 학생회 4인이 각각 교사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인이 모여 개정 작업도 한다.

4) 학교 밖 마을을 위해 봉사하다.

2013년부터 3년간 바로 옆에 있는 고기초등학교 한 부모 가정, 조부모로부터 양육받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후원하였다. 도서관에 여섯 상자의 도서를 기증하였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10-11학년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고기초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또, 600m 정도 떨어진 '고기교회'에 작은 도서관에 여섯 상자의 도서를 기증하였고, 고기초와 동일하게 교인 중에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옥상에서 재배한 야채를 가지고, 마을 어르신 15분을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였고, 학교의 작은 축제인 '봉산탈춤'에 초대하여 함께 공연을 보기도 하였다. 아울러, 마을 이곳 저곳에 널부러져 있는 쓰레기를 치우며 마을 청소를 하기도 하였으며, 지금은 마을 공방이나 공동체 공간에서 온사계밭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배움의 길, 체험의 길로 함께 하고 있다. 소명교육공동체는 이웃들과 작지만, 서로 배우며, 나누며, 봉사를 통해 '교육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다.

4.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마을’이 필요하다.

2016년 1월 중순에 방문한 영국의 브루더호프는 무소유를 실행하며, 마태복음5-7장(산상수훈)을 신조로 삼는 공동체로, 278명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공동으로 유아용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학교도, 보건소도, 교회도 마을안에서 있어 가정-교회-학교가 ‘한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내 아이만 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이웃집 아이도 내 아이처럼 섬기고 있었다. 자녀가 많은 가정이 브루더호프공동체에 이주해 오면, 자녀가 적은 가정이 기꺼이 큰 집을 비워준다. 한 마을이 ‘한 가족’인 셈이다. 현재, 브루더호프는 현재, 영국 2곳, 독일, 호주, 파라과이, 미국에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마을 공동체를 일궈내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소명학교에서 말하는 ‘한 마을’이란, 어떤 개념일까. 크리스찬 가정-교회-기독교학교 ‘연합체’가 아닐까. 세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비슷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과 ‘자녀 양육 목표’가 100% 같진 않아도 서로 신뢰와 존중하는 모습으로 ‘한 마을’을 이뤄가는 ‘한 마음’이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심은 서로 ‘진실하고 정직’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가정-학교-교회라는 한 마을의 개념도 쉽지 않다. 도시에서 흩어져있는 환경에서 가정-학교-교회가 한 마을을 이루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

이처럼 소명학교(기독교학교)에서 ‘한 마을’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제한적이지만, ‘한 작은 마을’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있다. 소명학교에서도 ‘한 마을’을 이루는 사례가 있었다. 2016년 두 자녀가 소명학교를 다니는데, 아빠가 폐암으로 이 세상과 이별하셨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한 마음으로 ‘장례식’에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위로해 주셨다. 2017년 9월 10학년 남학생이 사경(死境)을 헤매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90여일 동안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병상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물질로 ‘후원’하는 일도 일어났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2019년에도 두 자녀를 둔 아빠가 5월에 가족과 작별하셨다. 2016년과 같은 동일한 마음들이 모아지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남아공 단기선교, 11학년 통일세대 비전트립 등 다양한 학교의 교육활동에도 기꺼이 기쁘게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들이 있어 행복하다. ‘소명 쉼터’와 ‘작은 도서관’을 통해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소명교육공동체도 갈등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발생할 때, 그 공동체의 건강성이 나타난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과하고, 치유되고 회복될 때, 그 지점이 ‘건강한 교육 공동체’가 선포되는 것이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도 그렇고, 남과 북의 갈등과 적대감도 ‘용서와 사과, 치유와 회복, 화해,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질 그 날을 꿈꾸며 기도한다.



05

분임토의

(대안교육시설 발전방안 논의)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

인 쇄 2019년 08월 22일

발 행 2019년 08월 22일

발행처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인쇄처 나누리기획 (044-866-0671)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교육부(044-203-652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044-415-2153)

· 이 책의 내용은 www.gotoschool.re.kr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